

# 부산지역 철도역 소장 기록의 잔존양태 분석\*

## The Study on the Archives Held in Railroad Stations in Busan

이 주 연(Ju-Yeon Lee)\*\*

김 희 영(Hee-Young Kim)\*\*\*

### 목 차

- |                          |                       |
|--------------------------|-----------------------|
| 1. 서 론                   | 2.2 특징                |
|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 3. 부산지역 철도역 소장 기록의 의미 |
| 1.2 연구 범위와 방법            | 3.1 기억으로서의 서술         |
| 2. 부산지역 철도 관련 기록의 현황과 특징 | 3.2 기억으로서의 이미지        |
| 2.1 현황                   | 4. 결론 및 제언            |

### <초 록>

이 연구는 부산지역 철도역에서 소장하고 있는 기록들을 조사하여 그 현황을 밝히고, 이 기록들이 로컬리티의 기억을 재구성하는 데 있어서의 의미를 살펴보았다. 부산지역에 소재한 17개의 철도역을 방문하여 소장 기록을 조사한 결과, 1) 공공영역의 기록관리에서 이탈된 기록이다. 2) 주요 기록 유형은 역사(驛史)와 역세보고서, 운수운 전설비카드, 사진 자료, 기타 자료의 다섯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3) 폐기나 분실 등의 이유로 각 역마다 소장 기록의 규모에는 차이가 있다. 4) 각 유형별 기록들은 대체로 비슷한 서식을 가지고 있다. 특히 역사(驛史)나 역세보고서 등에 담긴 서술과 이미지는 역의 모습, 역 주변의 경관, 지역민들의 생활상과 경제상 등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로컬리티의 기억을 재구성하는 데 의미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철도역 소장 기록과 함께 각 기관에 흩어져 있는 공기록, 사기록의 잔존양태를 파악하여 로컬리티의 기억을 재구성해야 하며, 구술기록을 통해 결락을 메울 것을 제안한다.

주제어: 철도기록, 부산철도기록, 구술기록, 로컬리티, 로컬리티 기록화

### <ABSTRACT>

This paper surveyed records and archives which the railroad stations in Busan possesses and illustrated the status of them. Also we examined whether records and archives of railroad stations contain the memories of localities or not. We visited 17 railroad stations in Busan and we found that 1) the archives in railroad station are fugitive archives 2) the records or archives are classified into five categories, 'station's history', 'report on station-adjacent area', 'report of drive and transport', 'photos', and 'other materials' 3) the volume of such archives in 17 stations are different because of disposal or missing 4) Each archives in same category have same form. Especially the descriptions and images in 'station's history', 'report on station-adjacent area' represent much to memories of locality, but we also must examine the public records, private records related railroad station in Busan for documenting localities. To bridge the gap we suggest to collect oral records by relevant persons.

Keywords: locality, documenting localities, records in railroad stations, records in railroad stations in Busan

\* 이 논문은 2010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인문사회연구역량강화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0-330-H00006).

\*\*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강사(juyeoni@pusan.ac.kr)

\*\*\*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박사과정(falda@naver.com)

■ 접수일: 2011년 5월 25일 ■ 최초심사일: 2011년 6월 1일 ■ 게재확정일: 2011년 6월 22일

## 1. 서론

###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sup>1)</sup>

기록은 개인 또는 집단의 기억을 표현하고 지속적으로 보존할 수 있는 하나의 형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남겨진 기록을 통해 과거를 재현하거나, 과거에 대한 기억을 형상화할 수 있다. 특히 지역에 대한 기억을 담은 기록은 그 지역의 문화와 삶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지역의 역사와 가치를 유지하며,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이며, 전문적으로 지역 기록을 관리하고 있는 미국, 영국,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는 지역의 기록을 관리하기 위한 전문적인 기관이 전무한 실정이다. 물론 지역과 관련한 기록은 지역을 대표하는 기록관, 도서관, 박물관, 행정기관, 상공회의소, 문화원, 각종 협회, 연구소, 학교, 개인 등 다양한 유형의 기관과 개인에게 분산 소장되어 관리되고 있지만 이들 각 기관들은 그들이 소장하고 있는 기록에 대한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 지역의 기록에 대한 잔존 양태를 파악하는 것조차도 어려운 일이다.

물론 1999년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이 제정된 이후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기록관리가 수행되었고, 2006년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로 개정되면서 공공성

이 있는 민간에서 생산, 취득한 기록물에 대한 수집도 그 적용범위에 포함되지만 공공기관에서의 지역 또는 민간 기록관리는 그 목적이 다르고, 지역에 대해 파편적이거나 중앙 중심의 일방적인 기억만을 재현할 가능성이 있다. 뿐만 아니라 공기록(公記錄)이라 할지라도 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개별 기관에서 별도로 보관하여 관리하거나 일부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되어 관리되었기 때문에 체계적인 관리영역에서 벗어난 기록들이 다수 존재한다.

따라서 지역에 대한 파편적이거나 일방적인 기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사람, 사회, 제도, 문화, 공간, 역사 등 지역을 구성하는 다양한 영역의 기록을 수집, 생성, 재구성, 보존하는 일련의 활동을 의미하는 ‘로컬리티 기록화’<sup>2)</sup>를 통해 공공영역의 기록뿐만 아니라 누락된 공공영역의 기록, 민간영역까지 확대하여 각 기관이나 개인에게 분산 소장되어 있는 기록을 확인하고 이를 통해 결락된 부분을 확인하며, 로컬리티를 대표할 수 있도록 집합적으로 재구성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러한 재구성을 통해 지역의 문화와 지식자산을 확충하며 지역사회의 미래를 설계하기 위한 지적 기반을 조성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로컬리티는 특정한 시간과 공간 속에서 사건과 인물 등을 중심으로 표출되며 특히 특정 공간에 기반을 두고 시간의 축을 따라 축적된다. 특히 부산을 규정짓는 특징으로는 흔히 개방성, 해양성, 다문화성을 언급되는데 부산의 개방성

1) 연구의 배경과 목적은 SSK(Social Science Korea) 로컬리티 기록화 연구단이 2010년에 작성한 ‘로컬리티 기억의 탐구와 기록화 전략 연구계획서(미간행)’의 내용을 일부 발췌함.

2) ‘로컬리티(locality)’는 지역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사람, 사회, 제도, 문화, 공간 등)가 상호작용하면서 형성되는 특성을 의미하며, ‘기록화(documentation)’는 개인이나 조직, 사회의 활동과 역사를 재구성할 수 있도록 기록을 수집, 생성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과 해양성은 이동성(mobility) 공간 측면에서 보다 잘 드러날 수 있다.

부산의 이동성은 항구, 철도역, 지하철역, 공항 등의 고정공간과 도로와 길, 지하철, 철도, 고속도로 등 공간과 공간을 연결하는 공간으로 대표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 공간에 대한 탐구는 역동적인 부산의 공간적 로컬리티 기억을 재현하는 데에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동성을 대표하는 공간 중 고정공간으로서의 철도역으로 한정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sup>3)</sup>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이동성 공간 측면에서 부산 지역 철도역과 관련한 부산의 로컬리티를 대표할 수 있는 정책/사건이나 개인/집단, 장소에 대한 경험 등을 선정하기에 앞서 국가기록원을 중심으로 관리되고 있는 부산 지역 철도역 관련 기록이 아닌, 체계적인 관리의 영역에서는 벗어나 있지만 철도역에 소장되어 있는 다양한 유형의 기록 잔존 양태를 파악하고 그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철도역에서 소장하고 있는 기록들이 로컬리티를 대표할 수 있도록 재구성하는데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확인하고, 부산의 로컬리티를 표출하기 위해 결락된 부분을 어떻게 채워나가야 할지 제안해 보고자 한다.

## 1.2 연구 범위와 방법

현재 부산지역에는 경부선을 비롯하여 동해남부선, 우암선 등이 부설되어 있으며 그 외에 이들 선로를 직접 연결하는 가야선과 열차를 차량사무소로 회송하는 데 사용하는 부전선, 최근 개통한 부산신항선이 있다. 이 중 경부선과 동해남부선에 여객열차가 운행되고 있으며, 우암선과 부산신항선의 경우 화물전용 노선으로 운행하고 있다. 부산지역 내 현재 영업 중인 역에는 화명, 구포, 사상, 부산진, 부산역(이상 경부선), 범일, 부전, 거제, 남문구, 동래, 안락, 재송, 수영, 우일, 해운대, 송정, 기장, 일광, 좌천, 월내역(이상 동해남부선), 우암, 신선대역(이상 우암선), 가야, 부전역(이상 가야선), 사상, 범일역(이상 가야선<sup>4)</sup>), 부산신항역(이상 부산신항선)이 있다.<sup>5)</sup>

이들 역 중 임시승강장<sup>6)</sup>과 무배치간이역<sup>7)</sup>을 제외하고 역무원이 있는 역은 총 17개 철도역(가야역, 구포역, 기장역, 동래역, 범일역, 부산신항역, 부산역, 부산진역, 부전역, 사상역, 송정역, 신선대역, 우암역, 월내역,<sup>8)</sup> 좌천역, 해운대역, 화명역)이며 본 연구는 부산의 이동성 공간을 대표하는 부산 지역 17개 철도역에서 소장하고 있는 기록을 범위로 한다. 임시승강장이거나, 무배치간이역인 경우는 이미 폐쇄되

3) SSK(Social Science Korea) 로컬리티 기록화 연구단에서는 항구, 철도역, 지하철역, 공항, 도로 등 부산의 이동성을 대표하는 다양한 공간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아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철도역을 연구의 대상으로 다루고자 한다.

4) 가야선의 주례역은 임시승강장이었다가, 현재는 폐쇄됨.

5) 위키피디아 사전. [cited 2011. 5. 10]. <<http://ko.wikipedia.org>>.

6) 남문구역, 안락역, 우일역, 재송역.

7) 역무원이 배치되지 않은 간이역을 말한다. 거제역, 수영역.

8) 월내역은 위탁발매소로 실제 한국철도공사의 역무원이 근무하고 있지 않지만 위탁판매원이 근무하고 있고, 실제 기록을 다수 소장하고 있어 조사대상에 포함.

어 역사(驛舍)가 존재하지 않거나 역무원이 근무하고 있지 않아 소장 기록의 잔존 상태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제외시켰으며, 현재(2011년 5월) 17개 철도역은 역무원이 근무하는 부산 지역 모든 철도역을 포괄한다.

소장 기록은 전자기록으로 생산된 기록이 아닌 실제 역에서 물리적 파일 형태로 소장하고 있는 기록으로 한정하였으며, 기록의 잔존 양태를 확인하기 위해 한국철도공사와 한국철도공사 부산·경남본부의 협조를 얻어 2010년 12월 30일에서 2011년 5월 12일까지 각 역을 1회 또는 2회 방문하였으며, 조사는 기관 리드 파일을 미리 작성하고, 공문 발송, 전화 연락, 방문 조사 일정 조정(이상 방문 전 준비 단계), 방문 후 준비된 기록물 촬영, 역무과장급 이상의 역무원 면담(이상 방문 조사 단계), 리드파일 보충, 기록물 기술(이상 방문 후 정리 단계)의 과정을 통해 잔존 기록을 확인하였다.

## 2. 부산지역 철도 관련 기록의 현황과 특징

### 2.1 현황

부산 지역 철도 관련 기록은 국가기록원,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공사 부산·경남본부에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을 것이라 짐작되지만 한국철도공사나 한국철도공사 부산·경남본부

의 경우 전자문서시스템에 도입된 2002년 이전에 생산된 기록의 경우 현재 그 목록의 존재 여부도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기록을 보유·관리하고 있을 개연성만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해야만 확인할 수 있었다.<sup>9)</sup>

이에 공공영역 기록관리 중심인 국가기록원에 소장된 부산 지역 철도역과 관련된 기록을 국가기록원 검색시스템인 나라기록 포털에서 검색하면 <표 1>과 같다. 이 기록들은 기술계층 단위에 검색한 결과이며 생산 시기는 1955년에서 1994년까지이며 기록물 유형별 수량을 살펴보면 총 537권 분량의 공문서철이다.<sup>10)</sup>

다음의 기록철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국가기록원의 기록은 인사관리, 일반철도 및 광역철도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관련된 건널목 관련 기록, 철도 운전과 관련된 사고기록 등과 같은 기록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기록들이 로컬리티를 전혀 담고 있지 못한 것은 아니지만 철도역이라는 시설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다양한 사건과 사람들의 생활상보다는 인사 관련 및 임용, 사건 관련과 같은 행정적인 처리와 증거로서 남겨진 기록이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생산년도에 있어서도 1955년에서 1994년까지 약 40년 정도의 기록만을 보유하고 있어 부산지역 철도역이 1905년에 개통된 것에 반해 결락된 기록이 다수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로컬리티의 기억을 집합적으로 재구성하기 위해 이러한 결락의 요소를 통해 기억

9) 한국철도공사 기록관리담당자 전화인터뷰. [2011. 5. 11].

10) 이 기록들은 1998년 10월, 1999년 3월과 4월, 2000년 9월과 10월, 2001년 12월, 2002년 1월, 2003년 1월과 12월, 2004년 12월, 2005년 11월에 철도청에서 이관된 기록들이다(나라기록 포털 철도청 기술계층별검색 기술서 상세 정보 중에서).

〈표 1〉 국가기록원 기술 계층별 검색을 통한 부산 철도역 관련 기록

기록군	기록하위군	기록계열	하위계열	기록철	생산년도	수량		
철도청	부산지역본부	행정지원	인사관리	인사발령대장	1955-1994	82		
				인사사령부		23		
				징계의결요구서처리대장		9		
				징계의결서		8		
				소청		3		
				기여금등납입총괄표		72		
				근속기간합산신청서		3		
				소급재직기간합산신청서		1		
				경력합산		4		
				공무원호봉승급대장		21		
				퇴직유족연금일시금		3		
				연금사무		2		
				상훈대장		24		
				재해부조금청구서		1		
				일용인부퇴직금		1		
				유사경력통산신청서		1		
				유족보상금		3		
				인사기록정정		5		
				재해보상		1		
				퇴직유족장해보상신고서		2		
			기획	정원대장	1989-1994	7		
			일반철도 및 광역철도건설			원대지하도	1978-1985	1
						청원건널목승인		1
						청원공사		9
						수영건널목		1
						신천과선교		1
						매호건널목		1
						과선교		1
						안락건널목		1
						입체교차		1
						진영육교		1
						형제원건널목		1
						황오리지하도		1
						회원동건널목		1
			철도안전 및 운영			운전사고원부	1965-1989	22
						운전사고순보		3
	운전사고 및 운전장애원인분석표	10						
	운전사고 및 운전장애월보	5						
	운전사고월보	1						

기록군	기록하위군	기록계열	하위계열	기록철	생산년도	수량	
철도청	부산지역본부	철도재산관리		기부채납	1966-1994	21	
				공사용지매수		3	
				민유지 매수		26	
		철도정책			범죄사건기록부	1975-1994	9
					사건처리대장		1
					내사사건종결철		7
				사건종결철	11		
				철도공안사건처리원부	4		
	부산철도차량정보창	행정지원			1978-1994	상훈	6
						임용	40
						보조공원임용서	51
						징계	13
						정비원면직	3
						보조정비원면직	1
				보조정비원임용		3	

의 불균형을 확인하고 이것들을 채워나가는 과정으로 실제 부산지역 17개 철도역을 방문하여 역에서 소장하고 있는 기록을 조사하였고, 해당 17개 철도역의 개관과 역별 소장 기록의 구체적인 현황은 아래와 같다.

### 2.1.1 화명역(華明驛)

화명역은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동 2251번지에 소재한 역으로, 1999년 3월 10일 신호장<sup>11)</sup>으로 영업을 개시하였다. 2001년 12월 15일 여객 취급을 개시하였고, 2004년 4월 1일 보통역

으로 승격되었다(〈표 2〉 참조).

화명역에서 소장하고 있는 기록은 ‘화명역 운영현황’이라는 표제의 9쪽짜리 출력물이다. 2011년 1월에 생산되었으며 화명역의 연혁과 여객 승하차 인원 및 수입액, 열차취급횟수, 경영현황과 인근 관광지 등의 내용을 수록하고 있다.

### 2.1.2 구포역(龜浦驛)

구포역은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동 1060-470번지에 소재한 역으로, 1905년 1월 1일 운전취급역<sup>12)</sup>으로 영업을 개시하였다. 1990년대에는

〈표 2〉 화명역 소장 기록

구 분	생산년도	내 용
화명역 운영현황	2011년	역의 연혁, 여객 승하차 인원, 수입액, 열차취급횟수 등

11) 철도의 정거장의 일종으로 열차의 교행(交行) 또는 대피를 위하여 설치한 장소(네이버 백과사전).

12) 회차선로나 분기선로 등 운전취급에 필요한 특별한 선로를 갖고 있어서 열차의 방향을 돌리거나 다른 노선으로 열차를 바꿔 넣을 수 있는 역(네이버 백과사전).

동서통근열차<sup>3)</sup>의 여객을 담당하는 역으로서의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2004년부터 KTX가 정착하기 시작했으며, 현재 KTX 및 새마을호, 무궁화호가 정착 운행되고 있으며, 화명역과 사상역을 관할하고 있다(〈표 3〉 참조).

구포역에서 소장하고 있는 기록 자료는 역사와 역세보고서, 운수운전설비카드, 사진첩 및 개별 사진, ‘구포역 약사(略史)’와 ‘사진으로 보는 구포역 100년의 발자취’이다.

역사는 1권 151쪽으로, 1925년부터 2005년까지 작성기록이 있으며 연혁, 역대 역장의 명단과 역장의 소감, 연도별 철도수입이나 영업창고 성적, 사고나 순직자 명단 등이 기재되어 있다. 특히 1925년부터 1993년까지의 역대 역장(총 26명)의 소감이 실려 있다는 점이 특이할 만한 사항이라 하겠다. 소감들 중 일제시대의

것은 일본어로 적혀 있다.

역세보고서는 1964년과 1966년~1976년도 분 역세보고서가 존재하며 1966년~1976년 역세보고서는 한 권으로 첩근 편철되어 있다. 각 연도별로 5쪽에서 19쪽의 분량으로 되어 있다. 역세와 역세권 개황, 관광자원이나 교통량, 구내시설 및 배선도 등이 기재되어 있다.

운수운전설비카드는 1978년부터 1990년대 초(추정)까지 작성된 총 54쪽 분량의 기록으로, 위치도, 역세개황, 구내배선 및 건물위치도와 구내전경, 영업 및 운전설비 관련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사진 자료로는 1980년대~1990년대에 촬영된 것으로 추측되는 사진 15매와 ‘구포역 활동 사진첩’이라는 제목으로 비접착식 사진첩에 수납된 사진 410매(생산연도: 1999년~2001년)

〈표 3〉 구포역 소장 기록

구 분	생산년도	내 용
역사	1925년	구포역의 연혁, 역대역장, 역장의 소감, 신호기, 운수수송현황 등의 변천을 기재
역세보고서	1964~1977년	구포역의 개황, 역세권 현황, 시설물, 여객화물 수송, 경비(經費) 등을 매년 작성하여 부산지방철도청(국)에 제출한 문서
운수운전설비카드	1978~1994년	구포역의 연혁, 역세현황, 시설물(건물 위주), 여객수송 등을 작성하여 정리한 카드
사진자료	1980년대~2001년	구포역(구)역사 및 구포역 구내의 경관 등을 촬영한 컬러사진 15매 및 1999년~2001년의 활동을 담은 사진첩
약사	2006년	구포역의 연혁, 역대역장 등을 기록
사진으로 보는 구포역 100년의 발자취	2005년	당시 구포역 역무과장이 구포역에 남은 사진 및 문서기록, 구포문화원의 자료를 참고하여 구포역의 역사를 정리한 문서

13) “1974년 7월 1일 본격 운행된 동해남부선 통근열차는 당초 부산과 경북 포항을 연결하다가 1996년 4월 1일 동서 통근열차(부산 구포역~월내역)와 도시통근열차(부산역~월내역)로 나뉘어 각각 하루 4차레와 8차레 운행했으며 부산지하철 2호선이 개통된 2002년부터는 부산 부전역~월내역 구간만 하루 5차레 운행하다가 2006년 10월 31일을 마지막으로 전면 중단되었다.” - 『연합뉴스』 (2006.11.1). [cited 2011. 5. 10].  
 〈[http://app.yonhapnews.co.kr/YNA/Basic/OnAir/YIBW\\_showMPICNewsPopup.aspx?contents\\_id=MYH20061101000100355&bandwidth=700](http://app.yonhapnews.co.kr/YNA/Basic/OnAir/YIBW_showMPICNewsPopup.aspx?contents_id=MYH20061101000100355&bandwidth=700)〉.

가 존재한다. '구포역 활동 사진첩'에는 사진마다 날짜 및 간단한 설명이 부기되어 있다.

그 외에 '구포역 역사와 '사진으로 보는 구포역 100년의 발자취'가 있다. '구포역 역사'는 2006년 4월에 생산된 8쪽짜리 문서로 스테이플러로 편철되어 있다. 역의 구내 전경이 수록되어 있으며 주소 및 위치와 연혁, 역대역장, 소속 상훈 등이 기재되어 있다. '사진으로 보는 구포역 100년의 발자취'는 현재 구포역의 인터넷 포털 커뮤니티인 '코레일 구포역'<sup>14)</sup>에 업로드된 인터넷 게시물의 형태이다. 게시물 작성일자는 2010년 5월이나 원자료의 작성은 2005년 당시 구포역의 역무과장이 작성한 기록이다.<sup>15)</sup> 구포역의 건립과 건립 당시의 역세 상황, 일제 시기와 6.25 전쟁을 거쳐 지금에 이르기까지의 구포역의 변화와 발전사 등을 서술하였고, 시대별로 구포역 전경 등을 담은 23매의 사진 파일과 그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부기하였다.

### 2.1.3 사상역(沙上驛)

사상역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괘법동 473-2번지에 소재한 역으로, 1928년 11월 1일 보통역으로 영업을 개시하였다. 1944년 가야선이 개통되었고, 1990년대에는 동서통근열차가 정차하기도 하였다. 현재 무궁화호가 정차 운행

되고 있다(<표 4> 참조).

사상역에서 소장하고 있는 기록 자료는 2010년 12월에 생산된 '업무보고'라는 표제의 1쪽 규모의 출력물로, 사상역의 연혁과 근무인원, 수송량, 열차취급현황과 역세권 등이 기재되어 있다. 1928년에 세워진 역으로, 역의 역사(歷史)는 비교적 오래되었지만 그에 걸맞는 오래된 자료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으며, 이전 기록들은 몇 년 전 폐기된 것으로 보인다.<sup>16)</sup>

### 2.1.4 부산진역(釜山鎭驛)

부산광역시 동구 좌천동 1164-2번지에 소재한 역으로, 1905년 1월 1일 무배치간이역으로 영업을 개시하였으며 1906년 8월 25일 보통역으로 승격하였다. 경부선, 경전선 방면 통일호의 시종착역이었으나, 2005년 4월 1일부터 여객 취급을 중지하고 화물 업무만 담당하게 되었다. 역사(驛舍)를 컨테이너 야드 인근으로 이전하여 컨테이너 화물수송기능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다. 동해남부선과 우암선이 분기하며, 우암역과 신선대역의 관할역이기도 하다 (<표 5> 참조).<sup>17)</sup>

부산진역에서 소장하고 있는 기록으로는 사진 자료로 사진 19매와 필름원판 14롤, '사령부'와 '전용선 관계철'이 있다.

<표 4> 사상역 소장 기록

구 분	생산년도	내 용
업무보고	2010년	역의 연혁, 근무인원, 수송량, 열차취급현황, 역세권 등

14) 코레일 구포역 카페. [cited 2011. 5. 10]. <<http://cafe.daum.net/gupostations>>.

15) 2011년 1월 13일, 구포역 역장, 부역장과의 인터뷰.

16) 2011년 1월 18일, 사상역 부역장과의 인터뷰.

17) Railroad Station Database. [cited 2011. 5. 10]. <<http://www.stationdb.x-y.net/>>.



〈표 5〉 부산진역 소장 기록

구 분	생산년도	내 용
사진자료	1999~2000년	사진 19매, 필름원판 14롤. 부산진역 컨테이너 야드 개통, 전산기기 설치시의 모습을 담음
사령부	1972년	부산진역 소속 역무원의 인사이동 내역
전용선 관계철	1976년	전용선에 관계된 문서들

사진 19매는 1999년과 2000년에 생산한 자료로, 부산진역 컨테이너 야드 개통 및 전산기기 설치시의 모습이 담겨 있다. ‘사령부’는 1권 206쪽으로 되어 있으며, 1972년에서 1977년까지의 부산진역 소속 역무원의 인사이동 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전용선 관계철’은 1976년에 생산되었으며 1권 117쪽으로 되어 있다. 부산진역 전용선의 폐지 시기와 근거, 전용선 노선도 등이 기재되어 있다.

### 2.1.5 부산역(釜山驛)

부산역은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3동 1187-1번지에 소재한 역으로, 1908년 4월 1일 영업을 개시하였다. 1943년 12월 1일 부산부두역으로 개칭되었으나 1945년 6월 10일 종래의 부산역으로 역명이 환원되었다. 1965년에는 초량, 부산진역과의 통합으로 영업을 중지되었다가 1969년 6월 10일에 영업을 재개되기도 하였다. KTX 및 새마을호와 무궁화호가 정차하며, 경부선 일반열차와 KTX의 종착역이다. 관할역이 없는 단독 관리역으로 부산그룹대표역

이다. 역내에 코레일 부산경남본부가 위치하고 있다(〈표 6〉 참조).

부산역에서는 역사 1건을 소장하고 있었다. 역사는 1945년에 생산된 것으로 보이며, 1권 75쪽의 분량이다. 부산역의 연혁 및 역대 역장의 명단과 역장 소감, 직원수의 변화와 순직자 명단, 신호기 변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2.1.6 범일역(凡一驛)

범일역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1동 927번지에 소재한 역으로, 1943년 4월 2일 신호소로 영업을 개시하였으며 1957년 1월 16일 보통역으로 승격하였다. 1960년대 후반 역세권인 범천종합시장의 설립으로 이용객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이후 교통시설의 발달과 역세권 축소로 이용객이 급감하였다. 도시통근열차 및 일부 통일호열차가 정차해왔으나 2004년 2월 1일 동해남부선 시종착역이 부전역으로 변경되면서 현재는 여객취급과 화물취급 모두 하지 않으며 운전취급만 하고 있다.<sup>18)</sup> 가야선의 종착역이다(〈표 7〉 참조).

〈표 6〉 부산역 소장 기록

구 분	생산년도	내 용
역사	1945년	연혁, 역대 역장 명단, 역장 소감, 직원수, 순직자 명단 등

18) Railroad Station Database. [cited 2011. 5. 10]. <<http://www.stationdb.x-y.net/>>.

〈표 7〉 범일역 소장 기록

구 분	생산년도	내 용
역사	1957년	범일역의 연혁, 역대역장, 역장소감, 수송현황 등
역세보고서	1961~1972년	1960~1971년도의 범일역의 개황, 역세현황, 시설물현황, 수송현황, 경비 등
사진자료	1995~1996년	1995~1996년 동안 범일역내의 환경정비, 직원교육, 역사정비 등의 활동을 사진으로 기록하여 사진첩으로 정리
사령부	1968~2003년	범일역 소속 역무원의 진출, 승진 등의 내력을 기록한 장부
수입등기부	1960년대	범일역 관할의 국유용지 점유 거주민을 대상으로 한 세금 징수를 기록
약사	1993년	범일역의 연혁, 역대역장, 역세개황, 건축물의 면적, 수송량 수록

범일역에서 소장하고 있는 기록은 역사와 역세보고서, 사진첩, '범일역 사령부', '수입등기부', '철도약사'이다.

역사는 2건이 존재하는데, 시기상으로 앞선 역사는 1950년대(추정)에 작성된 기록으로, 1권 51쪽으로 되어 있다. 범일역의 연혁, 역대 역장의 명단과 역장의 소감, 연도별 역무원 수, 구내배선도, 역사의 도면 등이 수록되어 있다. 비교적 최근인 2001년에 생산된 범일역사는 범일역의 연혁 및 배선도, 역대 역장의 명단 등이 기재된 출력물이다.

역세보고서는 1961년~1971년에 작성된 기록으로, 각 연도별 역세보고서가 철근으로 편철되어 1권 86쪽으로 이루어져 있다. 역세권 개황과 구내배선도, 업무관리 개황, 비품현황 등이 기재되어 있다.

사진 자료로는 1995년~1996년 범일역 내 환경정비 및 직원교육 등의 활동을 담은 사진과 그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포함된 사진첩 2권(각 58쪽, 65쪽)이 있다.

'범일역 사령부'는 1권 33쪽으로 이루어졌으며, 1968년부터 2003년까지 범일역 역무원의

진출과 승진 등의 인사기록이 담긴 기록이다. '수입등기부'는 1960년대에 생산되었으며 1권 25쪽으로, 범일역 인근의 국유용지를 점유하고 있는 거주민을 대상으로 세금을 징수한 기록이다. '철도약사'는 1993년에 생산되었으며 1권 65쪽으로, 역사 전경을 담은 사진 및 역사의 위치, 연혁, 역대 역장과 역세개황 등이 수록되어 있다.

#### 2.1.7 부전역(釜田驛)

부전역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1동 280-83번지에 소재한 역으로, 1943년 4월 1일 무배치간이역으로 영업을 개시하였다. 1945년 5월 16일 보통역으로 승격되었다. 본래는 중앙, 동해남부선 방면 여객열차의 중간역이었으나 2004년 2월부터 경전선, 동해남부선, 중앙선 방면 여객열차의 시종착역으로 변경되었다.<sup>19)</sup> 부전선의 종착역이며, 구 우암선의 분기역이기도 하다. 동해남부선 부전~월내 구간의 모든 역을 관할하고 있다. 새마을호와 무궁화호가 정차한다(〈표 8〉 참조).

19) Railroad Station Database. [cited 2011. 5. 10]. <<http://www.stationdb.x-y.net/>>.

〈표 8〉 부전역 소장 기록

구 분	생산년도	내 용
운수운전설비카드	1984~2003년	부전역의 연혁, 역세현황, 건축물규모 및 현황, 신호장치현황, 여객 및 화물수송인원, 배선도, 역사전경 사진 10매 수록
부전정차장배치도	1982년	부전역 구내의 배선도 및 건물배치도면
사진자료	1992~1999년	새질서 새생활 추진실적 앨범첩, 1994년 환경개선 활동 사진첩, 고객중심 경영혁신 관련 활동 등의 사진첩
사령부	?	부전역 소속 역무원의 진출, 승진 등의 내력을 기록한 장부
입환관계 및 운전관계 교양자료	1998년	부전역 구내 입환, 운전취급시 주의사항을 교육하기 위해 제작한 자료
접객 표준응대 메뉴얼	1998년	부전역에서 자체적으로 제작한 고객 서비스를 위한 메뉴얼
부전역 잡문서철	1990년대	부전역 객차입환현황, 열차시각표, 열차별 승하차인원현황, 신문기사스크랩 등의 자료를 모은 것

부전역에서 소장하고 있는 기록은 운수운전 설비카드와 사진첩, '사령부', '동해남부선 부전 정차장 건물배치도', '입환관계 및 운전관계 교양자료', '고객감동 사례 및 자료 모음집'과 각종문서철이다.

부전역 소장의 운수운전설비카드는 1984년에 생산된 기록으로, 2003년까지 작성기록이 있으며, 총 33쪽의 카드로 되어 있다. 역사의 전경 및 구내 전경을 담은 사진이 10매 포함되어 있다. 역세개황과 구내 배선도, 운수수입 및 승강차 인원과 수입, 화물발송 및 도착량 등이 기재되어 있다.

사진첩은 총 6권으로, 부전역의 고객서비스 활동과 환경개선활동 등 각종 활동 모습을 담은 사진들로 이루어졌다. 6권에는 각각 117매('부전역의 고객중심 경영혁신 실적은 이렇습니다', 1999년 생산), 54매('1992년 새질서 새생활 추진 실적', 1992년 생산), 83매('94년 환경개선 1, 2단계', 1994년 생산), 62매('94년 환

경개선 3, 4단계', 1994년 생산), 86매('고객중심경영 추진활동 사진첩', 2000년 생산), 64매('고객중심경영 혁신 사진첩', 1994년 생산)가 수록되어 있다.

사령부는 부전역 소속 역무원의 진출, 승진 등의 내력을 기록한 장부로, 생산년도는 불명확하다.<sup>20)</sup> '동해남부선 부전정차장 건물배치도'는 1982년에 생산된 1장짜리 도면으로 건물부대시설(울타리 역명표, 역문, 배수대) 및 건물(역사, 창고, 비품실 등)의 수량, 수명, 위치 등이 표시되어 있다. '입환관계 및 운전관계 교양자료'는 입환 및 운전취급시의 주의사항의 교육자료이며, 역 구내의 배선도 및 역내 취약소를 사진과 함께 소개하고 있다. 1998년 생산되었으며 102쪽 규모이다. '고객감동 사례 및 자료 모음집'은 1997년 10월부터 1999년 6월까지 철도역의 고객 감동 사례의 신문, 잡지 기사 121장을 수록하고 있다. 각종문서철은 고객 감동 사례가 실린 신문 스크랩과 부전역 시설정

20) 부전역측에서 공개를 거부하여 내용 확인을 할 수 없었다.

보와 이용현황, 국유재산 허가사용자 및 사용료 징수현황 등의 문서, 1999년 부전역 열차시각표, 직원주소록, 역업무실태조사표 등 각종 문서들이 1권(46쪽)의 클리어 파일에 끼워져 있다.

### 2.1.8 동래역(東萊驛)

동래역은 부산광역시 동래구 낙민동 123번지에 소재한 역으로, 1934년 7월 15일에 보통역으로 영업을 개시하였다. 1971년 9월 10일 민수용 무연탄 화물 도착역으로 지정된 바 있으며, 그 이후 무연탄 화물취급이 활발하였으나 점차적인 수요 감소로 2007년 11월 1일 화물 취급이 중지되었고, 현재 무궁화호가 정차 운행되고 있다(〈표 9〉 참조).

동래역에서 소장하고 있는 기록은 ‘역세보고서’와 ‘사고증명서’, ‘전용선 화차출입 작업 안전협약서’, ‘협정서’이다.

1957년~1972년분의 역세보고서는 1권으로 편철되어 있으며 총 106쪽 분량이다. 표제는 ‘역세보고서철’로 되어 있다. 역세개항과 역 주변의 관광자원, 교통량 및 역 수송량과 배선도 등이 기재되어 있다.

‘사고증명서’는 1권 52쪽으로, 1952년에서 1967년까지의 동래역 화물 수송 과정에서 발생된 사고 관련 기록이 기재되어 있다. 화물사고 완결통지서, 영업사고조사서 등이 포함되어 있다. ‘전용선 화차출입작업 안전협약서’는 1986년에 생산된 기록으로 1권 9쪽으로 되어 있다. 1986년 군전용선을 부산진에서 동래로 지정변경하는 과정에서 체결한 안전협약서로, 위임장, 전용선 배선도 등을 포함하고 있다. ‘협정서’는 1권 83쪽으로, 1964년~1972년 화물 취급 업무와 관련된 서류이다. 동래역장과 한국운수주식회사 동래출장소장(現 대한통운 주식회사 부산지부) 간에 맺은 계약서와 인사 관련 서류 등이 포함된다.

### 2.1.9 해운대역(海雲臺驛)

해운대역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1동 524-1번지에 소재하고 있으며, 1934년 7월 15일에 영업을 개시하였다. 2007년 11월 1일 화물 취급이 중지되었고 현재 새마을호와 무궁화호가 정차 운행되고 있다. 과거에는 동서통근열차 및 도시통근열차가 운행된 바 있다(〈표 10〉 참조).<sup>21)</sup>

〈표 9〉 동래역 소장 기록

구분	생산연도	내용
역세보고서	1956~1972년	1955~1971년도의 동래역의 개항, 역세현황, 시설물현황, 수송현황, 경비 등
사고증명서	1952~1971년	동래역 도착화물 중 발생한 사고(화물유실 등)와 관련한 경위 및 사고증명을 위해 작성한 사고증명서 모음
전용선 화차출입 작업 안전협약서	1986년	동래역의 군전용선과 관련하여 동래역과 해당 군부대와 체결한 협약서, 동래역 배선도 등 수록
협정서	1964~1972년	1964~1972년 동래역 화물취급업무를 수행한 대한통운과 동래역에서 체결한 계약서 등을 수록

21) Railroad Station Database. [cited 2011. 5. 10]. <<http://www.stationdb.x-y.net/>>.

〈표 10〉 해운대역 소장 기록

구 분	생산년도	내 용
역 사	1957년, 1992년	해운대역, 수영역의 연혁, 역대역장, 역장소감, 수송현황 등
운수운전설비카드	1992년	해운대, 수영역의 연혁, 역세현황, 시설물 현황, 수송량 등
수영역 일대 지적도	2002년	수영역 일대의 지적도를 복사한 것

해운대역에서 소장하고 있는 기록은 역사와 운수운전설비카드, 그리고 '수영역 일대 지적도'이다.

해운대역에서 소장하고 있는 역사는 2건으로, 각각 해운대역 역사와 수영역 역사이다. 해운대역 역사는 1957년에 생산된 기록으로, 1권 65쪽으로 되어 있다. 해운대역의 연혁과 역대역장의 명단, 역원수와 구내면적 및 건물평수, 연도별 여객승강인원 및 화물차발 수량 등이 기재되어 있다. 해운대역의 구역사(舊驛舍)를 담은 사진(1987년 촬영)이 1장 첨부되어 있다. 수영역 역사는 1990년대에 작성된 수영역의 역사로, 1권 25쪽으로 되어 있다. 수영역의 연혁과 소재지 및 위치, 역대역장의 명단과 역세개황, 운전설비와 구내시설, 수송량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구내 전경 사진 2매와 수영정차장 용지도 1부가 첨부되어 있다.

운수운전설비카드 또한 해운대역과 수영역의 것이 존재한다. 해운대역 운수운전설비카드는 1992년~1996년, 2002년도의 작성기록이 있으며, 총 22쪽의 규모이다. 사진 6장이 수록되어 있다. 1992년~1996년도분은 철근 편철되어 있어 있다. 해운대역의 연혁과 역세현황, 시설물현황 및 수송현황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역사(驛舍) 전경 사진이 수록되어 있다. 수영

역 운수운전설비카드는 1992년~1998년, 1998년, 2002년의 3세트로 분리되어 있으며, 총 25쪽 규모이다. 컬러사진 6장과 복사된 사진 3장이 이미지로 포함되어 있다. 해운대역의 것과 마찬가지로 수영역의 연혁과 역세현황, 시설물현황 및 수송현황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역사(驛舍) 전경 사진이 수록되어 있다.

수영역 일대 지적도는 2002년에 생산된 기록으로, 수영역 및 인근지역의 지적도이다.

#### 2.1.10 송정역(松亭驛)

송정역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동 299번지에 소재한 역으로, 1934년 12월 16일 무배치간이역으로 영업을 개시하였다. 1941년 6월 1일 보통역으로 승격하였다. 1976년 7월 10일 화물 취급이 중지되고 현재는 여객 취급을 하고 있으며, 무궁화호가 정차운행되고 있다. 2006년 12월 4일 역사(驛舍)가 등록문화재(제302호)로 지정되기도 하였다(〈표 11〉 참조).<sup>22)</sup>

송정역에서 소장하고 있는 기록은 2010년 3월 5일에 작성된 송정역 안내 자료이다. 표제는 '천혜의 관광지 동해남부선 송정역 이모저모'로, 6쪽 규모의 출력물이다. 송정역 인근 관광지를 소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22) Railroad Station Database. [cited 2011. 5. 10]. <<http://www.stationdb.x-y.net/>>.

〈표 11〉 송정역 소장 기록

구 분	생산년도	내 용
'천혜의 관광지 동해남부선 송정역 이모저모'	2010년	송정역 인근 관광지 소개

2.1.11 기장역(機長驛)

기장역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청강리 54번지에 소재한 역으로, 1934년 12월 16일 배치간이역<sup>23)</sup>으로 영업을 개시하였다. 1935년 12월 16일 보통역으로 승격하였다. 현재 새마을호, 무궁화호가 정차운행되고 있다(〈표 12〉 참조).

기장역에서 소장하고 있는 기록은 역사와 역세보고서, 운수운전설비카드, '철도약사'이다.

기장역 역사는 1958년에 생산되어 2009년까지 작성기록이 있으며, 1권 88쪽으로 되어 있다. 기장역의 연혁과 역대 역장의 소감(총 11명), 사고건수와 사고개황, 영업개황과 표창사항 및 역내 활동을 담은 사진 31매(1950년대~1990년대 초반 촬영), 부산-강릉 간 무궁화호 기장역 정차기념 승차권 2매 등이 수록되어 있다.

기장역 역세보고서는 1960년~1977년 생산, 규모는 13권 159쪽이다. 역세개황, 여객 및 운전, 화물 수송량, 배선도 등이 수록되어 있다.

1971년과 1973년~1977년분 일광역 역세보고서가 존재하며 총15쪽 분량이다. 역세개황,

여객 및 운전, 화물 수송량, 배선도 등이 수록되어 있다.

운수운전설비카드는 일광역, 기장역 각각 22쪽과 20쪽의 규모로, 1970년대에 생산되어 1990년대까지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역의 위치와 연혁, 건축물 면적 및 배치, 배선도, 여객 및 화물, 수입량 등이 기재되어 있다.

기장역 철도약사는 1992년에 생산된 기록으로, 1권 85쪽으로 되어 있다. 기장역의 연혁과 역대역장의 명단, 역세개황, 역의 면적과 사용시설, 운전설비와 구내설비, 역인원과 열차운행횟수 등이 기재되어 있다. 역사(驛舍) 전경과 구내의 경관을 담은 사진이 총 22장 첨부되어 있다.

일광역 철도약사는 1993년에 생산된 기록으로, 1권 48쪽으로 되어 있다. 역의 소재지와 위치도, 연혁, 역세개황과 역의 용도별 면적, 영업설비와 취급설비, 운영설비, 역원의 인원과 열차운행횟수, 수송량 및 수입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역사(驛舍) 및 구내 사진 10장이 첨부되어 있다.

〈표 12〉 기장역 소장 기록

구 분	생산년도	내 용
역 사	1958년	기장역의 연혁, 역대역장, 역장소감, 수송현황, 시설물 현황 등을 기재
역세보고서	1960~1977년	기장역, 일광역의 개황, 역세현황, 수송량, 시설물 숫자 등
운수운전설비카드	1970~1979년	기장역, 일광역의 연혁, 역세현황, 시설물현황, 수송현황 등
약 사	1992년, 1993년	기장역, 일광역의 연혁, 역대역장, 수송현황, 시설물 현황 등

23) 역무원이 배치된 간이역을 말한다.

2.1.12 좌천역(左川驛)

좌천역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좌천리 119번지에 소재한 역으로, 1934년 12월 16일 운전취급역으로 영업을 개시하였다. 여객과 화물, 운전취급을 주업무로 하고 있으며, 현재 무궁화호가 정차운행되고 있다(〈표 13〉 참조).

좌천역에서 소장하고 있는 기록은 역사와 운수운전설비카드, '사령부', '구내 식재 평면도', '지적도면'과 '특수건축물 관리카드', '동해남부선 좌천정차장 용지도'이다.

역사는 1권 81쪽으로 철근 편철되었으며, 1981년에서 2000년까지의 작성기록이 있다. 좌천역의 연혁과 역대 역장 및 직원현황, 통신설비 변천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1981년의 현황 중심으로 내용이 빈약하다.

1993년에 생산된 것으로 보이는 6쪽 규모의 운수운전설비카드에는 구내배선도와 지도, 역세 및 역세권 개황, 수입 및 운전취급 등의 내용이 수록되어 있으며 사진 6매가 첨부되어 있다.

'사령부'는 좌천역에 근무하던 역무원의 전입, 전출과 승진 등 인사기록을 담은 자료가

다.<sup>24)</sup> '월내, 좌천, 송정역 구내식재 평면도'는 월내, 좌천, 송정역 구내의 조경을 위한 구내의 식재 위치를 표시한 도면으로 작성년도는 알 수 없다. 지적도면은 좌천역 인근 국유지의 지번을 표시한 1장짜리 지도로 생산년도는 알 수 없다. 특수건축물 관리카드는 좌천역사의 건물 규모와 소화설비, 소방 및 신고관련사항 등이 기재된 4쪽짜리 문서로 1985년에서 1986년 사이에 작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동해남부선 좌천정차장 용지도'는 일제시대 좌천역의 역사 및 승강장, 화물플랫폼, 관사의 위치 등이 담긴 1장짜리 청사진 도면이다. 1941년 3월 23일 측량 승인, 1943년 11월 8일 검열필 기록으로 보아 그 사이에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2.1.13 월내역(月內驛)

월내역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월내리 142번지에 소재한 역으로, 1935년 12월 16일 배치간이역으로 영업을 개시하였다. 1945년 6월 1일 보통역으로 승격되었다. 2008년 1월 15일 무배치간이역으로 격하되었다. 현재 무궁화

〈표 13〉 좌천역 소장 기록

구 분	생산년도	내 용
사령부	?	좌천역 소속 역무원의 전출, 전입, 승진 등 인사내역을 기록한 장부
역사	1981년	좌천역의 연혁, 역대역장, 역장소감 등
동해남부선 좌천정차장 용지도	1941년	좌천역 역사(驛舍), 승강장, 관사 등의 위치를 담은 도면
운수운전설비카드	1992~1993년	좌천역의 역세개황, 건축물현황, 여객 및 화물수송량 등
월내, 좌천, 송정역 구내 식재 평면도	불명	월내, 좌천, 송정역 구내의 식재(植栽) 위치를 표시한 도면
특수건축물 관리카드	1985년	좌천역 재해발생시 대응수단 및 연락망 등을 기록한 카드
지적도면	불명	좌천역 인근의 국유지 지번을 표시한 지도

24) 좌천역장의 공개 거부로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다. 철근 편철로 이루어진 1권 규모이다.

호가 정착운영되고 있으며 대매소로 전환되어 운영 중이다(〈표 14〉 참조).

월내역은 역의 등급 상으로는 간이역이지만 대매소로 운영되면서 코레일 유통 직원이 1인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관할역인 좌천역으로 기록의 이관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월내역에서 소장하고 있는 기록은 역사와 운수운전설비카드, 사진첩, 사령부와 약사, 수입등기부 및 기타 계약서 등이다.

월내역의 역사는 1935년에 생산되었으며, 1권 153쪽 규모이다. 역의 연혁과 역장소감, 역원수와 신호기변천, 여객 및 화물통계 등을 수록하고 있다.

운수운전설비카드는 역세개황, 시설물현황, 운수수입과 배선도 등의 내용을 수록하고 있다. 월내역의 운수운전설비카드는 1977년~1993년분이며 총 46매가 1권으로 철근 편철되어 있다. 서생역의 설비카드는 1979년~1993년분이며 37매가 1권으로 철근 편철되어 있다. 사진은 각각 11매와 5매씩 수록되어 있다.

사진자료는 ‘표준역정비사진첩’으로 1권 39

쪽에 사진 80장을 수록하고 있다. 1990년 월내역에서 실시한 역의 정비 활동을 사진으로 기록한 것으로 역사 및 구내 전경, 화단 조경, 도로 포장, 현수막 설치 등의 활동 모습을 담고 있다.

‘사령부’는 1968년 생산된 기록으로, 1권 102쪽으로 되어 있다. 1968년에서 2007년까지 월내역 및 서생역 소속 직원의 성명과 직위(소속, 직위, 직급, 호봉), 발령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다.

월내역의 약사는 1권 20쪽이며 1993년에 생산되었다. 월내역의 역세현황과 연혁, 시설 및 규모, 영업현황, 국유재산 운용 등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사진 2매가 첨부되어 있다. 서생역의 약사는 1993년에 생산되었으며 월내역의 것과 마찬가지로 1권 20쪽 규모이다. 서생역의 역세현황과 연혁, 시설 및 규모, 역 영업현황 등이 기재되어 있다.

‘수입등기부’는 1970년에서 2006년까지의 축적된 기록이 1권 90쪽 규모 편철되어 있다. 월내역 관할 국유토지 사용인을 대상으로 징수한 토지사용료 내역을 1970년 12월부터 2006년까지

〈표 14〉 월내역 소장 기록

구 분	생산년도	내 용
역사	1935년	월내역의 연혁, 역장소감, 역원수, 신호기변천, 여객 및 화물 통계 수록
운수운전설비카드	1977~1993년	월내, 서생역의 연혁, 역세개황, 시설물현황, 운수수입, 배선도 등
사령부	1968년	월내역에서 근무한 직원의 진출, 전입, 승진 등의 내역을 기재
수소화물 업무용역 계약	1986~1990년	월내, 서생역의 수소화물 취급을 하는 대한통운과 월내역간의 계약내역
서생역 을중대매소 관련 문서첩	1982~1990년	서생역 대매소 운영과 관련하여 대매소장 임명, 업무인계인수서, 순회 점검표 등을 수록
표준역정비사진첩	1990년	1990년에 월내역에서 실시한 역내 환경정비 활동을 사진으로 담은 것
약사	1993년	월내, 서생역의 연혁, 역사전경, 역대역장, 역원수, 신호기변천, 여객 및 화물통계 등
단체신청접수부	불명	월내역에서 접수된 단체여객 명부
수입등기부	1970~2006년	월내역 관할의 국유토지 사용인을 대상으로 징수한 토지사용료를 매년 기록한 것
고발장	1997년	월내역 구내에 선로무단통행한 사람을 대상으로 발부한 고발장



지 작성한 것으로 수수일자, 징수액, 납세자, 납부담당자, 납기일 등을 기재하고 있다. 토지사용료 징수 고지서 및 영수증이 첨부되어 있다.

월내역, 서생역 수소화물 업무용역 계약에 관련된 기록이 존재한다. 월내역 기록은 월내역에서 수소화물 취급을 담당하는 대한통운 월내출장소와 수소화물 업무용역 계약취급과 관련하여 작성한 기안문서 및 계약협정서, 취급소장의 서약서 등으로 구성되었다. 1986년~1990년도 분 4권 29쪽의 규모이다. 서생역 기록은 1986년에서 1990년까지 서생역에서 수소화물을 취급한 대한통운 서생화물취급소와 월내역 간에 체결한 계약문서들로 구성되었다. 1986년~1990년분의 4권 26쪽 규모이다.

그 외에 대매업소와의 업무인계인수서, 대한통운 서생출장소장 추천서, 대매소 순회점검표, 승차권류 위탁발매계약서, 사원채용 승인 요청서, 대한토운 서생출장소장의 시말서와 사유서 등 여러 건의 기록들이 남아 있었다.

2.1.14 우암역(牛岩驛)

우암역은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2동 184-253번지에 소재한 역으로, 1942년 1월 1일에 보통역으로 영업을 개시하였다. 주로 미군 화물 및 무연탄도착화물을 취급하고 있으며 여객취급은 하지 않는다. 우암선 개통 당시에는 부산진이 아닌 부전에서 분기하였으며, 연탄공장 인

입선이 그 흔적이다. 현재는 전국 각지로 화물을 수송하고 있으며 특히 동해소재의 삼화역으로 시멘트 제조용 수입벽돌을 발송하고 있다<sup>25)</sup> (<표 15> 참조).

우암역에서 소장하고 있던 역사 등의 기록은 관리역인 신선대역으로 이관하였고, 현재 소장 중인 기록은 '우암역 운영 현황'이다. 2011년 1월에 생산된 6쪽 규모의 출력물로, 2011년 기준으로 한 우암역의 주요 업무 등이 수록되어 있다.

2.1.15 신선대역(神仙臺驛)

신선대역은 부산광역시 남구 감만1동 206-42번지에 소재한 역으로, 1995년 3월 11일 신선대 부두의 철송장으로 영업을 개시하였다. 신선대역으로 영업을 개시한 것은 1998년 4월 1일이며 1999년 2월 25일 역사(驛舍) 이전과 동시에 보통역으로 승격되었다. 우암선의 종착역으로, 감만부두 및 신선대부두의 컨테이너화물 수송을 주업무로 하고 있다. 역 내부는 보세지역으로 일반인은 무단출입이 불가능하다(<표 16> 참조).

신선대역에서 소장하고 있는 기록은 역사와 역세보고서, '구내배설 및 용량조사'와 '우암역 고정자산 부호'이다. 모든 기록이 우암역에서 이관된 우암역의 자료라는 점이 특이할 만하다.

신선대역에서 소장하고 있는 역사는 시기가 다른 총 2건의 역사이다. 보다 이전 시기에 생

<표 15> 우암역 소장 기록

구 분	생산년도	내 용
'우암역 운영 현황'	2011년	우암역의 주요 업무 등

25) Railroad Station Database. [cited 2011. 5. 10]. <<http://www.stationdb.x-y.net/>>.

〈표 16〉 신선대역 소장 기록

구 분	생산년도	내 용
역 사	1950년대	우암역의 연혁, 역원수, 구내선로의 연장 및 변천, 여객승강인원 등
역세보고서	1953~1973년	우암역의 역세개황, 화물취급량, 화차착발, 구내배선도, 수입액, 정원 등
'구내배선 및 용량조사'	1980년	우암역의 배선 및 용량을 조사하여 보고한 기안문서
'우암역 고정자산 부호'	1963~1964년	우암역의 고정자산(건물)의 면적 및 부호, 우암역의 대지 및 건평을 기재

산된 역사는 철근으로 편철된 1권 51쪽으로, 1950년대에 생산된 기록이다. 우암역의 연혁과 역대 역장, 역원의 수와 구내 선로와 운전 설비의 변천, 여객승강인원 및 화물의 착발수량 등이 기재되어 있다. 나머지 1권의 역사는 1993년에 생산된 19쪽짜리 문서이다. 우암역 구역사 및 구내 전경을 촬영한 사진 2매가 첨부되어 있으며, 역의 소재지와 위치도, 연혁, 역대 역장과 역세현황, 구내설비와 수송량 및 수입 등이 기재되어 있다.

1953년부터 1976년까지의 우암역 역세보고서가 존재하는데, 1953년부터 1971년까지의 역세보고서는 각 연도별 보고서가 1권 167쪽으로 철근 편철되어 있으며, 1972년부터 1976년까지의 역세보고서는 각각 8~13쪽으로 각 연도별로 스테이플러로 편철되어 있다. 역세개황과 관광자원, 건널목교통량, 화물취급량 등이 기재되어 있다.

'구내배선 및 용량조사'는 1980년에 작성된 6쪽의 문서로, 우암역의 배선 및 용량을 조사하여 기록한 보고서이다. 첨부자료로 구내 배선 약도와 포용하수 및 화물 적하능력표가 있다.

'우암역 고정자산부호'는 1963년~1964년에 생산된 것으로 추정되며 우암역의 고정자산(건물)의 면적 및 부호(符號), 대지 및 건평이 기재된 2쪽짜리 문서이다.

2.1.16 가야역(伽倻驛)

가야역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당감3동 253번지에 소재한 역으로, 1944년 6월 10일 조차장으로 영업을 개시하였다. 1955년 5월 1일 가야역으로 역명을 변경하였으며 현재는 운전취급 및 승차권 발권 등이 주 업무이다. 부전선의 분기역이며, 범일역의 관리역이다(〈표 17〉 참조).

가야역에서 소장하고 있는 기록은 2007년경에 생산된 것으로 보이는 '한국철도공사 부산지사 가야역 소개'라는 제목의 출력물이다. 16쪽 규모로, 가야역의 연혁 및 인근 관광지 등을 수록하고 있다. 문서의 말미에 업무일지와 업무보고서 등을 참고로 하여 작성하였다는 내용이 적혀 있으나, 현재 가야역에서는 이 자료 외의 다른 기록은 소장하고 있지 않으며 역무원들도 행방을 모르는 실정이었다.

〈표 17〉 가야역 소장 기록

구 분	생산년도	내 용
'가야역 소개'	2007년	연혁, 인근관광지 소개 등

2.1.17 부산신항역(釜山新港驛)

부산신항역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송정동 746 번지에 소재한 역으로, 2010년 11월 30일 간이 역으로 영업을 개시하였다. 부산신항선의 종착 역이며, 부산신항에서 취급하는 컨테이너화물을 취급하는 조차장역의 성격으로 영업하고 있다(〈표 18〉 참조).<sup>26)</sup>

부산신항역에서 소장하고 있는 기록은 2011년에 생산된 '부산신항역 운영현황'이라는 표제의 40쪽짜리 출력물이다. 부산신항역의 연혁 및 역원수, 배선도, 수송현황과 추이, 향후 분석 등의 내용을 수록하고 있다.

2.2 특징

위와 같이 실제로 17개의 철도역을 방문하여 소장 기록을 조사한 결과, 철도역 소장 기록에서 아래와 같이 몇 가지 특징을 찾아볼 수 있었다.

첫째, 조사된 기록은 공공기록관리 영역에서 이탈된 공기록이다. 국가기록관리체계에 따르면 이러한 기록들은 국가기록원이나 한국철도공사에서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이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공영역에서 이탈되어 기록의 규모나 보존상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철도역에서 소장하고 있는 기록의 유형은 크게 역사(驛史)와 역세보고서, 운수운전설비카드와 사진 자료, 기타 자료의 다섯 가지

로 나누어볼 수 있었다.

역사는 해당 역의 연혁과 역장 및 역무원에 관한 사항, 여객 및 화물 취급량에 관한 사항, 설비의 변천 등을 담고 있는 기록으로, 이름 그대로 해당 역의 역사(歷史)를 보여주는 철도역의 대표적인 기록이라 하겠다. 역세보고서는 상부 보고를 위해 역의 개황과 역세현황, 구내의 시설물현황, 여객 및 화물의 수송현황, 연간 수입 및 경비내역 등이 기재된 기록이다. 운수운전설비카드는 카드 형식으로 보통 8쪽 정도의 분량이며, 역의 연혁과 역세개황, 건물 중심의 시설물현황, 수송현황 등이 간략히 기재되어 있다. 특히 구내의 도면이나 사진을 첨부하는 난을 두고 있어 역사(驛舍)가 신축되었거나 이전되었을 경우 구내나 주위 경관의 비교에 좋은 자료가 된다. 사진 자료는 역 구내나 경관을 담거나 역이 주관하는 여러 활동의 모습을 담은 사진첩이 위주이다. 기타 자료에는 역사(驛史), 역세보고서, 운수운전설비카드와 사진 자료를 제외한 모든 기록이 포함된다. 기타 자료 중 대표적인 것으로 철도약사, 사령부 및 협정서 등을 들 수 있다. 철도약사는 역사와 마찬가지로 해당 역의 전반적인 개황(概況) 등을 담고 있으나 대체로 역사(驛史)에 비해 분량이 적어 내용이 소략한 것이 특징이다. 사령부(司令簿)는 역원의 인사기록을 담은 자료이며 국가기록원에서도 동일한 유형의 기록이 존재한다. 또

〈표 18〉 부산신항역 소장 기록

구 분	생산년도	내 용
'부산신항역 운영현황'	2011	연혁, 역원수, 배선도 등

26) Railroad Station Database. [cited 2011. 5. 10]. <<http://www.stationdb.x-y.net/>>.

한 협정서는 철도역과 대매소, 화물, 수소화물(手小貨物)을 취급하는 기관 또는 개인과의 계약에 관한 제문서들을 포함한다.

각 역들의 기록 유형별 소장 내역을 정리하면 아래의 <표 19>와 같다.

셋째, 역별 기록 소장 규모에서 차이가 있었다. 역에 따라 앞에서 나는 다섯 가지 유형의 기록들을 모두 소장하고 있는 역이 있는 반면, 최근에 생산된 역의 전반적인 운영현황을 소개하는 몇 쪽에서 몇 십 쪽 분량의 출력물이 소장 기록의 전부인 역도 있었다.

이처럼 역별 소장 기록의 규모 차가 나는 이유는 역사(驛舍)의 이전 시에 폐기 또는 분실

되거나, 무인화가 이루어질 경우 소장하고 있던 기록들을 관할역으로 이관되지 못하고 폐기 또는 분실<sup>27)</sup> 혹은 기록들을 해당역에서 소장하지 않고 상부기관에 제출하였거나 국가기록원에 이관하였기 때문이다.

넷째, 각 유형별 기록들은 소장 역에 관계없이 유사한 서식이며, 대동소이한 항목들을 수록하고 있다. 이로 볼 때 상부기관의 작성 지시에 따라 각 기록들이 생산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실제로 1966년 4월 22일 관보 제 4328호에는 역세보고규정을 제정한다는 철도청 훈령 제1337호가 실려 있다.<sup>28)</sup> 훈령에는 역세보고의 종류와 서식과 함께 항목 추가나 기입방법,

<표 19> 각 역들의 기록 유형별 소장 내역

역명	기록자료				
	역사(驛史)	역세보고서	운수운전설비카드	사진자료	기타
화명역					○
구포역	○	○	○	○	○
사상역					○
부산진역				○	○
부산역	○				
범일역	○	○		○	○
부전역			○	○	○
동래역		○			○
해운대역	○		○		○
송정역					○
기장역	○	○	○		○
좌천역	○		○		○
월내역	○		○	○	○
우암역					○
신선대역	○	○			○
가야역					○
부산신항역					○

27) 수영역은 무인화가 이루어지면서 관할역인 해운대역으로 역사 기록 등이 이관되었으나, 마찬가지로 무인화된 거제역의 경우 관할역인 부전역에서 거제역의 기록들을 찾을 수 없었다.

28) 국가기록원 관보검색. [cited 2011. 5. 8.]. <<http://contents.archives.go.kr/next/gazette/viewMain.do>>.

제출에 관한 제반사항들이 명시되어 있다.<sup>29)</sup> 또한 이 역세보고규정은 1968년 2월 29일 철도청 훈령 제2124호(관보 제4885호)를 통해 부정승차 처리 실적과 관광자원관계, 교통량 조사 등의 내용을 삽입하라는 개정의 지시가 내려진다. 이를 통해 당시 철도청에서는 정해진 항목과 형식에 따라 각 역에 역세보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도록 지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 3. 부산지역 철도역 소장 기록의 의미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역의 연혁과 역무원의 수, 화물 수송량이나 이용 여객수 등 많은 정보가 담겨 있는 역사(驛史)와 역세개황, 여객취급 및 화물취급실적, 교통량 등이 담긴 역세보고서는 소장 기록 중에서 대표적인 유형이다. 이 기록들을 통해 당시의 시대상을 엿볼 수 있거나, 역세권의 모습, 지역주민의 생활상 등을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역사(驛史), 역세보고서 등을 담겨 있는 내용과 이미지를 통해 소장 기록의 의미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3.1 기억으로서의 서술

철도역 소장 기록 중에서 1925년에서 1945년까지의 역사(驛史)는 조선총독부 철도국 산하의 철도역에서 생산된 기록으로, 그 시대적 가치만으로도 높게 평가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역사(驛史)의 내용 중에서도 특히 다른 기록에서 찾아보기 힘든 '역장의 소감'은 대략 1~3쪽 분량으로, 주로 해당 역에 부임하면서 혹은 다른 역으로 부임되어 떠나며 역무에 관한 역장의 업무성과나 역 주변의 모습, 앞으로 역에서 개선해야 할 점, 또는 부임이나 전출로 인한 개인적 소회 등을 자유롭게 기술하고 있다.

주요 화물인 미곡 및 비료의 이동이 반감했다. 특산 과일은 비교적 수확이 좋아 출하에서 증가를 보였다. 게다가 만주국의 발전과 함께 어물류의 판로에 확장이 되는 결과를 가져온 노력으로 대량의 수출을 얻어 운수 수입은 총계에서 전년 비교 약 3할 7푼의 격증을 가져오기에 이르렀다. 북선공사 진척을 이끈 역무는 매우 바빴으며 대부분 신입자에 의한 업무수행도 시국 하에 일체의 체제대로 시행해 연간 무사고의 호역으로 이끌었다.<sup>30)</sup>

- 昭和 15년(1940) 4. 5.  
(구포역사 '역장의 소감' 中)

위 내용에서는 당시 역을 통해 미곡, 비료, 과실류가 이동하였으며, 특히 구포역을 통해 부산의 어물류들이 만주국까지 수출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1940년 당시 부산의 물류이동을 부분적으로나마 짐작할 수 있는 기록이다.

수수(隨水) 7백리 낙동강두 구포역에 부임한 지 어언 1년이 경과하였다. 노경의 세월은 제촉

29) '종래의 역세보고 및 역무통계는 본규정에 통합된다'는 역세보고규정의 부칙에서도 1966년 이전에도 각 역에서는 역세보고서의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30) 인용의 내용이 일본어로 된 경우는 번역하였고, 그 외에는 기술된 그대로를 표기하였다.

이 심하다. 이곳 구포는 경부선의 부산시현관으로 사람의 집산지요 소채류의 집산지로서 기철송(鐵送) 관계로 그날그날의 생활이 매우 분주한가운대 날이 다가버렸다. 순간순간을 더욱 보람있게 지내야되겠는걸 덧없는 한세월만 노뻤는가 한다. 지금 구포지역은 일익발전도상에 있으며 미안(微岸)의 김해평야에는 소채 재배 ...

- 1969. 3. 5.(구포역사 '역장의 소감' 中)

위 기록은 김해평야에서 생산된 채소류들이 구포역으로 집결되어 철도를 통해 유통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역으로 모여들어 역주변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외적으로 증공이 유엔에 가입함으로써 앞으로 전개될 새로운 국제질서가 변모될 것이고 국내적으로는 허다한 난제를 안고 있다. 제3차 5개년 계획의 첫해라서가 아니라 비상사태 선언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으로 소용돌이 치던 정국은 그 불씨를 새해에까지 넘여왔으며 지난해에 노출된 경제면의 부조리들도 그 해결의 장을 모두 새해에 기대하고 있다. 또한 철도청은 강원고속도로 개통 앞으로 다가올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 등으로 인한 수입 감소에 따른 경영난에 봉착하게 될 것은 자타가 공인하는 바이니 경영합리화 운동에 적극협력하여야 될 것이며 안으로는 보다 튼튼한 경제기반을 구축하고 밖으로는 예상할 수 없는 모든 외적과 대처할 수 있는 국민 총화를 이룩하여야 한다는 중요한 해임을 깊이 명심하며 ...

- 1972. 1. 4.(해운대역사 '역장의 소감' 中)

위의 글에서는 1972년 당시 국내외의 복잡한

정세 속에 새해를 맞이하는 해운대역 역장의 심정이 드러나 있다. 또한 1967년부터 착공되기 시작한 고속도로가 당시 잇따라 개통됨에 따라 철도 수입이 감소될 것을 걱정하고, 경영합리화에 대한 의지를 다지는 모습도 엿볼 수 있다.

1971년 6월 11일 당역에 부임이래 거창적으로 실시한 철도가꾸기 운동에 호응하여 역사북쪽 선로면에 백매트거리 4열로 국화라인과 기관장 및 지방유지로부터 기증받은 관상목 40여구루을 심어 관상단지를 조성하였고 발전도상에 있는 구포지구는 남해안 고속도로의 진입로 뿐만 아니라 "사하", "해운대" 방면의 시내빠스시발점으로서 날로 증가되는 승강인원은 일일 평균 사천여에 도달하고 역대합실의 협소함을 면치못하고 여객전용역이라는 너깅을 가지며 전국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새마을사업으로 역광장 포장 문제가 수차 논의되어서나 여이치못하였다. 1972년 ○월 ○일 故 ○○○조역의 순직에 대하여 예도한 마음 짐 할길 없으며 기리우리 철도사에 빛나고 구감이 되었습니다.

역사남쪽 호전철기에서 분기되어 전장 이백미트의 공군전용선은 착공한지 오개월에 완공을 보았으나 군당국의 사정(역-비행장)간의 송유관시설의 미완으로 전용선 사용 계약이 체결되지 못하고 있음.

역직원의 건강과 행복 또는 당역의 비약한 발전을 빌겠습니다.

- 1972. 12. 13.(구포역사 '역장의 소감' 中)

위의 글은 1972년 구포역의 환경개선사업과 역을 둘러싼 인근의 교통시설 및 이용자의 특징을 보여주며, 당시 역과 군사시설 간의 관련

성도 알 수 있다.

역세보고서는 철도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산업의 양상이나 그 곳에 주거하는 주민들의 생활상이나 당시 역이나 역세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6.25 동안전까지는 인가도 없었으나 피난민의 이주와 더불어 군수물자 및 외자물자 등의 수송과 부두작업 인부의 집합 등으로 근간에는 인구 약 이만을 산하는 큰 부락이 건설됨

해안부두 시설의 완비와 군기타 물자수송이 있음으로 차에 관련된 발전은 다소 있으나 장래성은 없음. 빈곤한 생활상태이며 보편적인 도시 생활형태임

- 1954년도 우암역 역세보고서 中

1954년도 우암역 역세보고서에서는 6.25 전쟁 직후 피난민들과 부두 인부들의 집합을 통해 마을이 형성되어 이들이 주거주민이었으며, 주민들의 '빈곤한 생활상태'를 언급하고 있다.

당역부근 일대를 차지하고 있는 우암동은 구 한국시대에 동해군 용국면 우암리로서 발족 1930년 4월 7일 부산부에 편입하였고 1945년 8월 15일 해방과 동시 적기동을 흡수 우암동으로 확장 1957년 1월 1일 부산진구청 관할에 편입되었음. 주민생활은 대다수가 노무, 상업에 종사하고 있음. 생산공장지대로 적합하며 공업지대로 큰 생산공장이 발전하고 있음.

- 1971년도 우암역 역세보고서 中

위의 글에서는 주민들이 종사하는 업종을 서

술하고 있으며, 1970년대 우암역 주변의 생산 공장지대의 성립과 발전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민간생활은 대부분이 지방으로부터 모여든 곳이며 영세민이 많이 살고 있었으나 6.25사변 후 점차적으로 발전되어 큰 공장이 설립되어 보통역으로 승격됨에 따라 여객화물취급도 많으며 인구의 밀도도 상당하며 주로 진주선, 동해남부선의 특산물의 소비지로 크게 발전하고 있음.

- 1964년도 범일역 역세보고서 中

종합 범천시장의 완전개설로 인하여 비약적인 수송수요 증대가 날로 늘어나고 있어 역 및 인근 주민들의 눈부신 활동이 전개되고 있음

- 1968년도 범일역 역세보고서 中

부산의 지역 중심부를 범천지구로 옮기고 각종시장(자유, 중앙, 범천, 부산진)이 건설되어 수송수요가 증가되어 가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시민이 집중투자 건설하고 있는 실정임.

각종시장의 건설과 부산지역 중심부의 개발 도상에 있고 시민의 집중투자로 중소기업이 활발하고 있어 비약적인 수송수요가 늘어나고 있으므로 역의 확장과 시설의 확충이 절실히 요망됨.

- 1971년도 범일역 역세보고서 中

1964년 범일역은 진주선과 동해남부선의 특산물이 집하되는 장소로서 범일역 주변의 시장 형성을 이끌었으며 이로 인해 1968년에는 종합 범천시장으로 완전 개설되어 역세권이 더욱 성장함을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1970년대 초반 범일역 주위에 각종 대형시장이 형성되어 수송 수요가 점점 증가하고 그에 따라 시민들의 활

발한 왕래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서 살펴본 역사(驛史)나 역세보고서 등의 서술을 통해 당시의 시대상을 엿볼 수 있거나, 역세권의 모습, 지역주민의 생활상 등을 짐작할 수 있었다. 이런 의미에서 보통사람의 이야기와 보통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로컬리티를 표출할 수 있는 좋은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토마스 클락(Thomas Clark)의 말처럼 로컬리티의 기억을 재구성하는 데 있어 의미가 있는 기록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Cox 1996, 16).

### 3.2 기억으로서의 이미지

철도역 소장 기록 중 사진첩은 물론이고 역사(驛史)와 역세보고서, 운수운전설비카드에도 많은 사진이나 그림이 첨부되어 있다. 그리고 서술과 달리 그림이나 사진은 한 장면의 이미지만으로도 시간의 흐름에 따른 장소의 변화를 한눈에 알 수 있게 해 준다.

〈그림 1〉에서 좌측은 해운대역의 역사(驛史)에 첨부된 해운대역 구역사(舊驛舍)의 전

경 사진(1987년 촬영)이고, 우측의 사진은 해운대역 운수운전설비카드에 첨부된 신역사(新驛舍)의 전경 사진(2002년 촬영)이다. 해운대역의 역사(驛舍)와 광장이라는 공간의 변화를 알 수 있게 하는 기록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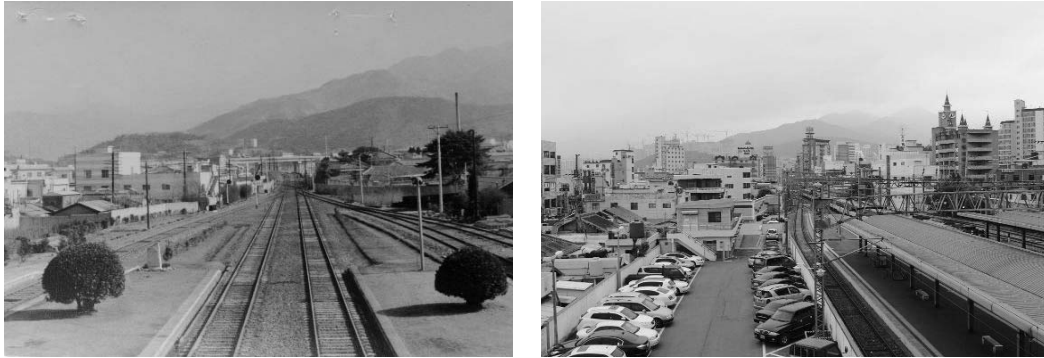
〈그림 2〉의 좌측 사진은 구포역에서 소장하고 있는 사진 자료 중 1매로, 정확한 촬영일자는 불명확하지만 1980년대 중반일 것으로 추측된다. 우측의 사진은 과거의 경관과 비교하기 위해 비슷한 장소에서 2011년 5월 촬영한 사진이다. 두 장의 사진을 비교하면 구포역 주변의 경관이 얼마나 많이 변화하였는지를 한눈에 알 수 있다. 구포역 소장 사진 자료를 통해 구포 지역의 변화한 경관과 더불어 지역민의 직업과 주거환경 등의 삶의 변화까지도 유추할 수 있다.

〈그림 3〉의 사진은 기장역 역사(驛史)에 수록된 1950년대 중반의 사진들이다. 이 사진을 통해 지금의 모습과는 다른 1950년대 당시 역사의 모습과 역 주위의 경관의 변화를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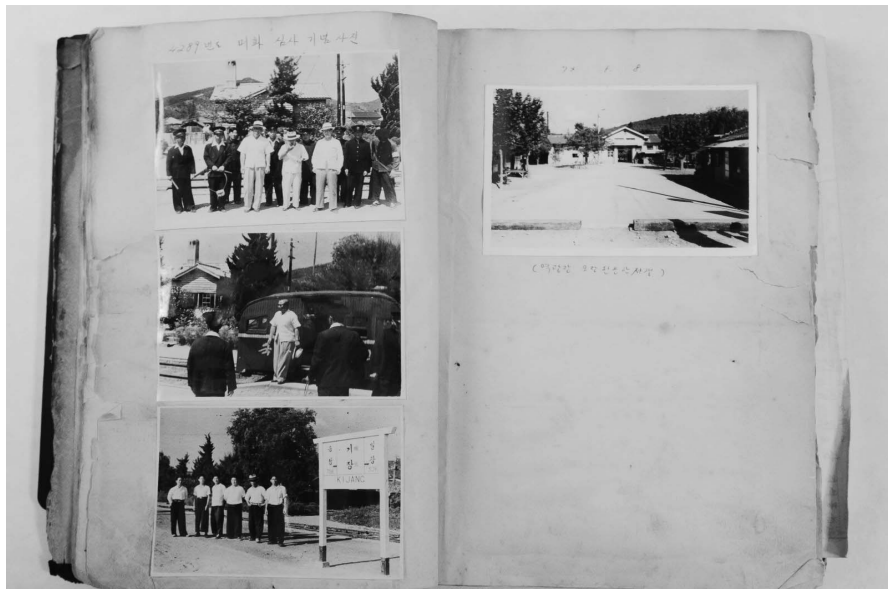


〈그림 1〉 해운대역의 구역사(舊驛舍)와 신역사(新驛舍) 전경 사진





〈그림 2〉 구포역 주변경관의 변천(화명방면)



〈그림 3〉 기장역 구내와 역전(驛前) 경관을 담은 사진들

〈그림 4〉의 사진은 월내역의 표준역정비 사진첩(1990년 촬영)의 한 페이지이다. 역사(驛舍) 주변의 환경정비 활동을 담은 사진들이 수록되어 있다. 타 지역으로의 관광열차 운영을 알리거나 인근의 해수욕장 개장을 알리는 현수막들이 게시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위의 사진 자료들은 1990년 당시 철도역과 지역민들이 소통한 내용과 방식을 이해하는 자료

로서의 역할을 한다.

이처럼 철도역 소장의 사진 기록은 역사(驛舍)의 개축(改築), 역 주위의 경관이 바뀌어가는 모습, 또는 역 앞의 사람들이나 게시물 등을 담고 있다. 그러므로 사진은 그 당시, 그 지역의 철도역뿐만 아니라 지역민들의 생활상의 일면을 짐작하게 하는 단서로서의 의미가 있다.



〈그림 4〉 월내역 표준역정비 사진첩

#### 4. 결론 및 제언

부산지역의 철도역에서 소장하고 있는 기록은 공공영역의 기록관리에서 이탈된 기록이다. 특히 역사(驛史)나 역세보고서 등은 공공영역에서 관리되고 있는 기록과는 다른 유형의 기록이다. 이 기록들은 로컬리티의 기억을 재구성하는 데 의미가 있는 기록으로 역의 모습, 역 주변의 경관, 지역민들의 생활상과 경제상 등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이 기록들은 로컬리티의 기억을 재구성하는 데 있어 일부 활용될 수 있으며 이와 함께 국가기록원이나 한국철도공사, 기타 공공기관의 공기록과 민간기관과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사기록의 잔존양태를 파악하여 이를 재구성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기억의 불균형이 확인되면 개인의 기억 속에 남아 있는 과거나 역사적

사건을 재구성하는 작업을 통해 만들어진 구술기록(기록학용어사전, 32)을 통해 앞서 언급한 공기록과 사기록, 그리고 철도역 소장 기록으로도 메울 수 없는 결락을 보충할 수 있다.

따라서 로컬리티의 기억을 재구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구술기록의 수집을 제안하고자 한다. 실제 조사과정의 일환으로 실시한 각 역의 역무과장 이상급 역무원 인터뷰에서 철도역 소장 기록에서 확인할 수 없었던 철도역을 둘러싼 주민들의 삶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인터뷰의 일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일제시대 당시 거제역 인근 산비탈에 철도 관사가 집단으로 조성되었는데, 이들의 편의를 위해 거제역이 설치되었다는 말이 있다.

- 가야역 부역장

거제역은 전국적으로도 드문케 플랫폼 선상에 역사(驛舍)가 위치하였는데 개인적으로는 철거된 것이 아쉽다. 근무 당시에는 선로가 역사 양쪽에 위치하다보니 환경이 열악하긴 하였다. 주로 통근열차 및 각역 정차 통일호가 정차했으며 남문구에 범조타운이 들어서면서 이용객이 많았으며 타역발 승차권을 구입하러 오는 주민들도 상당히 많았다.

- 기장역 역장

부산진역은 경전선, 동해남부선, 경부선 승객이 상당히 많았고, 비둘기호 승객들은 주로 부산진역을 이용하였다. 친서민적인 역이었다. 범일역은 당시에는 규모가 굉장히 큰 역이었다. 범일역 앞 골목이 큰 시장이었고 좌천이나 기장, 일광 주민들이 이 곳에 내려 시장에서 장사를 하다가 저녁 무렵에 돌아가곤 했다. 또 대한통운 부산지점이 범일역 앞에 있어서 소화물을 취급했는데, 부산으로 공급되던 진로소주 화물은 모두 범일역에서 취급 및 집하를 하였다. 범일역 건너편 경남아파트 자리는 그 당시 삼화고무(신발공장)가 있었다.

- 송정역 역장

1970년대에는 부산의 전자재를 부전역에서 들여왔다. 당시 부전역 앞에는 슬레이트, 쇠석 등 전자재 상사가 잔뜩 있었다. 당시 부전시장이 더욱 두각을 드러냈었고, 잔치가 있으면 부전시장에 가서 장을 보는 게 당연한 일이었다. 아침열차가 되면 동해남부선 열차를 타고 200여 명

이상이 농산물을 들고 부전에 내려 시장으로 가곤 했다.

- 신선대역 역장

1970년대까지는 해운대에서 송정으로 바로 가는 도로가 없었기 때문에 열차에 매달려서 송정역을 찾을 정도로 이용객이 상당했다.

- 해운대역 열차운용원

인터뷰의 대상자는 대부분 20년 이상 근속자로, 부산·경남 지역의 철도역이나 철도사무소 등에서 근무하였기에 철도역 주변의 경관 변화나 주민들의 삶의 모습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기억해내고 있었다. 이러한 과정으로 구술기록을 구축함으로써 로컬리티의 기억을 재구성하는 데 결락된 부분을 점차 채워나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부산지역 철도와 관련된 구술기록은 현직 역무원뿐만 아니라 부산·경남 지역 퇴직 철도역무원들의 모임인 철우회 부산지부 회원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통한 수집을 통해 보다 효과적이고 풍부한 기록들이 보충될 것이다. 동시에 철도역 인근의 재래시장 상인들이나 공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구술기록을 수집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로컬리티의 기억을 완벽하게 재구성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파편적인 기억의 잔재들을 모으고 재현해서 결락을 최대한 메움으로써 풍부한 로컬리티의 기억은 재구성될 수 있을 것이다.

## 참 고 문 헌

Cox, Richard J., 1996. *Documenting Localities: A Practical Model for American Archivists and Manuscript Curators*. Lanham, Md.: Scarecrow Press.

SSK(Social Science Korea) 로컬리티 기록화 연구단, 2010. 로컬리티 기억의 탐구와 기록화 전략 연구계획서(미간행).

연합뉴스, 2006. “동해남부선 통근열차 32년여 만에 중단.”

[http://app.yonhapnews.co.kr/YNA/Basic/OnAir/YIBW\\_showMPICNewsPopup.aspx?contents\\_id=MYH20061101000100355&bandwidth=700](http://app.yonhapnews.co.kr/YNA/Basic/OnAir/YIBW_showMPICNewsPopup.aspx?contents_id=MYH20061101000100355&bandwidth=700).

### [관련 사이트]

국가기록원 관보.

<http://contents.archives.go.kr/next/gazette/viewMain.do>.

나라기록포털.

<http://contents.archives.go.kr/>.

위키피디아 사전. <http://ko.wikipedia.org>.

네이버 백과사전. <http://100.naver.com>.

Railroad Station Database.

<http://www.stationdb.x-y.net/>.

코레일 구포역 카페.

<http://cafe.daum.net/gupostations>.